



21세기와 여성 리더십

김선욱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Univ. Konstanz 법학대학에서 행정법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대외활동으로는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장, 국가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2010년 8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수행하고 있다.

집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산딸나무잎이 어느 새 푸른 빛을 잃고 바알깡게 바뀌었습니다. 나뭇잎이 여름에서 가을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오래 응시할 틈이 없었음을 실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랜만에 창 밖을 봅니다. 나뭇잎 사이로 열린 하늘을 보며, 하늘처럼 무한한 세계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 속의 대학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기술이지만 가장 커다란 진보는 그 기술을 낳은 상상력과 의도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공유하는 마인드, 투명한 마인드가 이 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무한경쟁의 사회적 논리에 맞서는 가치가 부재한 이 시대에 협력과 배려, 화합에 근거한 여성적 가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왜 새로운 리더십

을 필요로 하는가? 리더십에 대한 작금의 뜨거운 관심은 두 가지 이유를 갖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자신이 맡은 일은 주도적으로 수행할 셀프 리더십을 지닐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노력은 공동체적 가치로 채워지지 못하면 공허해 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세기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각성입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더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장, 발전, 효율성 등의 가치를 추구해 왔고, 이를 주도할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상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 재난과 사회적 불평등, 빈곤과 분쟁의 국제 현실은 이전의 가치 덕목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문제가 빈번

히 거론되는 오늘날, 글로벌 리더십의 지향적 가치는 변화합니다. 주도성, 지배력, 권위의 남성적 리더보다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공감능력을 지닌 리더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은 생물학적 여성의 특수성이나 이제까지 여성적 특성이라고 일컬어져 온 부드러움, 섬세함, 헌신 등의 덕목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성 리더십은 가치 차원에서의 전향적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개별화된 전문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조화와 균형의 감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여성 리더십은 차가운 전문성이나 개별적인 특출함보다는 타인과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식,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주도하는 참여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대화자가 여성 리더십이 지향하는 지도자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안정된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물질·양적 자원을 안정화시키고 다져갈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여성 리더십의 가치와 만납니다.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의,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중심의 여성 리더십은 이 시대가 요청하는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는 21세기가 요청하는 새로운 가치를 체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대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낼 책무를 지닙니다. 상호 신뢰, 청렴, 배려, 사랑, 정의 등은 우리 대학이 지켜온 오랜 가치이자 이 시대 여성 리더십이 지향하는 가치 덕목입니다. 이제 이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냉혹해 지는 현실에 맞서 세상을 따듯하고 풍요롭게 하는 소통과 화합의 여성 리더십이 사회 곳곳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